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데이터로 읽고, 묻고, 해결하기: 토론형 데이터 사고력 소모임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4	4	2	3	5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SW분과)			담당교수	황태준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재구성하며, 협업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결안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생성·요약할 수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편향성·맥락 적합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학생 스스로 질문을 정교화하고 결과를 검증·판단하는 사고력이 필수적이다.</p> <p>본 프로그램은 AI 관련 사회적 쟁점, 생활 데이터, 공공데이터, 미디어 자료 등을 토론소모임의 핵심 매개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읽는 능력”에서 나아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반박하며 해결책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을 실질적으로 체화하는 동시에,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정의-근거 탐색-대안 설계-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p> <p>또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 소모임 운영은 전공 간 융합적 관점을 촉진하고, 교수자 지도 아래 학생 주도적 탐구와 발표를 병행함으로써 교과 수업에서 확장되기 어려운 실천형·참여형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AI 문해력, 데이터 리터러시, 협업 소통 역량, 윤리적 판단력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핵심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p>					
역량성취 교수법	본 프로그램은 토론 중심 PBL(Project/Problem-Based Learning)과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학습, AI 활용 검증 활동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수법 요소	운영 방식			성취 역량	
	문제기반학습(PBL)	AI·데이터 관련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팀별로 문제를 재정의한 뒤 해결 방향을 도출			문제발견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토론·논증 학습	자료를 근거로 주장·반박·재반박을 수행하고 합의안을 작성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의사소통 역량	
	데이터 리터러시 학습	표·그래프·기사·공공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해석하며 왜곡 가능성을 검토			데이터 사고력, 정보판단력	
AI 활용 검증 활동	생성형 AI의 응답을 비교·검토하고 오류·편향·한계를 분석			AI 문해력, 윤리적 판단력		

<p>비교과 세부내용</p>	<p>1주차 : 오리엔테이션 &amp; 문제기반학습(PBL) (1) - 고객 데이터: 충성 고객과 이탈 고객 식별하기</p> <p>2주차 : 문제기반학습(PBL) (2) - 성과 데이터: KPI 보고서 작성 및 해석</p> <p>3주차 : 문제기반학습(PBL) (3) - 재무 데이터: 비용 구조 분석 및 최적화</p> <p>4주차 : 토론·논증 학습 (1) - 고객의 목소리(VOC): 리뷰와 문의 분석</p> <p>5주차 : 토론·논증 학습 (2) - 시장 조사의 완전 자동화: 딥 리서치와 전략 분석</p> <p>6주차 : 토론·논증 학습 (3)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응답에서 숨은 의도 찾기</p> <p>7주차 : 데이터 리터러시 학습 - 차트, 기본부터 제대로: 목적에 맞는 시각화 기초</p> <p>8주차 : AI 활용 검증 활동 - 보고서를 완성하는 디자인: 챗GPT 시각화 고급 활용법</p>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성·타당성·윤리성을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li> <li>○ 팀 기반 토론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타인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li> <li>○ 공공데이터와 생활밀착형 자료를 활용한 탐구 과정을 통해 전공을 넘어서는 융합적 시각과 실제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li> <li>○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검증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AI 문해력과 데이터 사고력을 동시에 높이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자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li> <li>○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수료증·마일리지·유니포인트 제공은 학생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 차원의 AI 역량 강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li> </ul>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과 문제해결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3	4	3	3	5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SW 분과)			담당교수	김백현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도약과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과 학부생들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핵심 역량을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교육이 방대한 지식의 축적과 소유에 집중했다면, 현 대학교육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며, 첨단 디지털 도구를 주체적으로 통제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역량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의 차원을 넘어 문서 고도화, 데이터 요약, 아이디어 발상 및 의사결정 보조 등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미래 실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적 파트너로 확산되고 있다.</p> <p>그러나 실제 대학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 방식은 과제 수행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단편적인 보조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 학생은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을 비판적인 안목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에 기반하여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분석적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AI 기술의 치명적인 한계인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노출되어 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기술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욱이 많은 비전공 학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추론하는 체계적인 사고 훈련을 받지 못해,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실제 문제해결 역량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존재한다.</p> <p>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기술과 데이터 기반 사고력(Data Thinking)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AI의 산출물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본인의 주전공 및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본 부트캠프는 비전공 학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실습 중심의 설계를 채택하여 대학 차원의 융합형 교육 확산과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p>					
역량성취 교수법	<p>본 프로그램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역동적인 실시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역량 성취를 달성하고자 '문제해결 기반 학습(PBL)'과 '실시간 밀착 피드백 교수법(Real-time Scaffolding)'을 핵심 운영 원리로 적용한다. 단순히 생성형 AI의 이론적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문제를 구조화하며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결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학습 흐름을 채택하였다. 전체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작동 메커니즘 이해 → 데이터 교차 검증 → 논리적 문제 정의 → AI 협업 기반 해결안 도출 → 산출물 평가 및 성찰'의 5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교수자가 실제 공공 데이터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당면 과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가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가감 없이 시연한다. 학생들은 교수자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별하고, AI의 에러나 환각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며 질문을 수정해 나가는지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인지적 도제 관계에 기반한 깊이 있는 학습 전이(Learning Transfer)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실습 중심 환경의 이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정체와 논리적 오류를 즉각적으로 지도하며 교정하는 '원포인트 밀착 피드백'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학습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화된 프롬프트 시나리오 팩, 데이터 검증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패키지로 동시 공급한다. 표준 프롬프트는 초보 학습자도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가진단 자료는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왜곡이나 논리적 비약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 지향적 교수법은 학습자의 실천적 참여를 촉진하고 고도화된 문제해결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이 된다.</p>					

<p>비교과 세부내용</p>	<p>본 프로그램은 총 15시간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생성형 AI 활용 역량과 데이터 사고력의 체계적인 빌드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 1]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기초 (1~3차시): 생성형 AI의 구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인식, 데이터 기반 사고의 정의와 필요성, 주전공 연계 탐구 주제 설정 및 확장 학습</li> <li>• [모듈 2] 데이터 탐색 및 정보 신뢰성 검증 (4~6차시): 고급 검색 기법 및 데이터 수집 전략, 생성형 AI 활용 정보의 교차 검증 및 환각 현상(Hallucination) 식별 실습</li> <li>• [모듈 3] 데이터 시각화와 논리적 문제 정의 (7~9차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적 시각화 기법 습득, 시각 자료 해석을 통한 핵심 문제(Pain Point) 도출 및 원인 분석 구조화</li> <li>• [모듈 4] AI 협업 기반의 창의적 해결안 설계 (10~12차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을 적용한 다각적 해결 대안 생성,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강화</li> <li>• [모듈 5] 실전 융합 프로젝트 및 책임 있는 AI 윤리 (13~15차시): 전공 연계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리포트 작성 및 교정, AI 활용 저작권 쟁점 분석, 디지털 시민성 교육 및 연구 윤리 준수 가이드</li> </ul>
<p>기대효과</p>	<p>가. 대학 핵심 역량 성취 목표 (총점 20점 기준 배점) 본 강좌 이수 후,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증명할 대학 6대 핵심 역량의 도달 목표 정수값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융합: 5 (주전공 이론 지식과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하는 최상위 융합 역량 성취)</li> <li>• 문제해결: 4 (데이터 탐색부터 AI 협업을 통한 해결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완수하는 실무 해결력 확보)</li> <li>• 도전창조: 3 (단순 정보 소비를 넘어 기술을 비판적으로 통제하는 인공지능 분석 영역에 주도적으로 진입)</li> <li>• 의사소통: 3 (도출된 분석 결과를 시각적·논리적 보고서 형태로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li> <li>• 지식탐구: 3 (정형화된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인사이트를 독립적으로 발굴)</li> <li>• 협업인성: 2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및 데이터 편향성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윤리적 인성 확립)</li> </ul> <p>나. 성과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공 계열의 디지털 역량 격차 완화: 프로그래밍 코딩 언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데이터 접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고도화된 기술 활용 자신감을 심어준다.</li> <li>• 인공지능 오류 통제를 위한 비판적 문해력 체득: 생성형 AI의 응답을 맹신하지 않고, 교차 검증을 통해 정보의 왜곡과 알고리즘의 한계를 식별·교정하는 고차원적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배양한다.</li> <li>• 시장 중심형 전공 융합 실무 역량 강화: 본인의 주전공 지식 위에 생성형 AI 인프라와 데이터 사고력을 탑재함으로써, 향후 졸업 연구, 학술 실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실무형 융합 인재로 성장한다.</li> <li>• 대학 비교과 교수학습의 선도적 모델 확립: 교수 중심의 일방향 원격 강의 구조를 혁신하여, '학생 주도의 실습'과 '정밀한 사고 과정 시연'이 결합된 고품질 원격 교육과정의 표준 표준 가이드라인을 교내에 확산한다.</li> </ul>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시대의 언어 탐정: AI와 인간 언어의 경계 읽기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4	3	5	4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분과)		담당교수	박보연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오늘날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대화하고 글을 생산하는 소통의 주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언어의 음성적 특성부터 의미와 맥락에 이르기까지 인간 언어의 특성을 AI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생성하는 언어를 인간답게 또는 인간답지 않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 <p>본 비교과 프로그램은 AI와 인간의 언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AI 언어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개설되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인간 언어와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AI 언어의 생성 및 처리 과정과 인간 언어의 특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AI가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간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재인식한다. 나아가 AI와 인간의 소통 방식을 다각도로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AI 언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 감수성과 분석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역량성취 교수법	<p>본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문제 중심 학습(PBL)과 데이터 기반 탐구를 결합한 교수법을 바탕으로, AI가 이해하고 생성하는 언어를 인간 언어와 비교·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p> <p>첫째, 음성 데이터를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언어와 AI 음성 처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b>데이터 기반 탐구 학습을 수행한다.</b></p> <p>둘째, AI의 오류 및 한계를 인간 언어의 복잡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b>비판적 성찰 중심 학습을 운영한다.</b></p> <p>셋째, 번역 오류 사례를 통해 언어의 맥락성과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분석하며 <b>해석 중심 사고를 확장한다.</b></p> <p>넷째, AI 기술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화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설계 기반 학습을 통해 <b>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한다.</b></p>					

<p>비교과 세부내용</p>	<p>1. 인간 언어와 AI 언어의 음성 비교 분석          학생들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을 활용하여 인간 언어와 AI 언어를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하고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음높이(F0), 음길이, 강세, 억양 패턴 등 음성적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청각적 인상 평가를 병행하여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p> <p>2. 비표준 발화 및 비언어적 요소의 AI 처리 분석          학생들은 한숨, 웃음, 말 끊김, 사투리 등 비표준 발화 및 비언어적 요소가 포함된 음성을 직접 생성하여 AI에 입력하고, AI의 STT/TTS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 오류 및 변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AI가 인간 발화의 비정형적 특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인간 언어의 복잡성과 AI의 음성 인식 기술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p> <p>3. AI 번역 기술의 맥락 이해 및 사회언어학적 편향 분석          학생들은 AI 번역기를 활용하여 동일 문장의 번역 결과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 간 구조적 차이와 한국어의 특수성이 번역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지 분석한다. 또한 성별, 직업, 사회적 역할 등과 관련된 표현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하여 사회언어학적 편향을 검증한다. 더 나아가 구어·문어 차이와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의미 변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고맥락 표현에서 번역이 어려워지는 언어적·문화적 요소들을 탐구한다.</p> <p>4. AI 의인화 및 인간화 조건 분석과 설계 활동          학생들은 기존 AI 의인화 평가척도를 분석하여 그 구성 요소와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AI를 인간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언어 표현 방식, 감정 반응, 대화 지속성 등)를 직접 도출하고, 새로운 의인화 평가 기준을 설계한다. 또한 AI를 상담자, 친구, 협력자와 같은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수행한다.</p>
<p>기대효과</p>	<p>본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AI 언어와 인간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AI 언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융합형 사고 역량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p> <p>첫째, AI 음성 및 번역 기술의 언어적 한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AI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b>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을 심화한다.</b></p> <p>둘째, 음운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등 언어학적 이론과 AI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문제를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b>융합적 사고 역량을 강화한다.</b></p> <p>셋째, 인간 발화의 음성적·의미적 특성과 맥락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b>인간 언어의 정교한 특성을 재인식하고, 인간적 소통의 가치를 이해한다.</b></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시대의 자기주도 탐구					
핵심역량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1	4	3	4	5	3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SW분과)			담당교수	이 선 아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본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신의 의식이 향하는 방향을 데이터로 발견하고, AI 코치와 함께 점검하며, 작은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는 'AI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p> <p>AI가 데이터 분석 자체를 대신 수행해 주는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분석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AI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반증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 도구를 다루는 능력보다,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설계하는 데이터 사고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학생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칠 뿐, 수집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분석 가치를 지닌 질문을 도출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p> <p>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 분야인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의 취지에 따라 코딩 기술이 아닌 데이터 기반 사고력 그 자체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은 지식 관리 도구인 Obsidian을 분석 환경으로 삼아, 남이 만든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모은 관심 분야 정보를 데이터로 다룬다.</p> <p>이를 통해 ① 자신의 관심 정보를 구조화하고, ②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 문제를 발견하며, ③ AI와 함께 분석·검증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AI 시대에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데이터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p>					
역량성취 교수법	<p>본 활동은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자와 AI가 함께 코칭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하며, 다음 교수법을 결합한다.</p> <p>첫째, 실무형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훈련이다. 판다스 문법이나 통계 함수 사용법을 가르치는 도구 중심 강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가가 수행하는 「가설 설정 → 데이터 큐레이션 → 비판적 분석 → 반증」의 사고 흐름 자체를 단계적으로 훈련한다.</p> <p>둘째, AI의 1:1 코치 활용이다. AI를 정답 제공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되비추는 거울, 가설의 허점을 지적하는 비평가, 다음 탐구 단계를 제안하는 코치로 정의하여 활용한다. 특히 비전공자가 막히는 지점에서 즉시 도움을 주는 1:1 보조 강사 역할을 부여해 진입장벽을 낮춘다.</p> <p>셋째, 단계적 난이도 설계(No-Code 우선)이다. 초반에는 코드 없이 그래프 뷰와 클릭 기반 템플릿으로 시작하고, 고급 질의 기능은 원하는 학생만 선택적으로 심화하도록 하여, 비전공자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한다.</p> <p>넷째, 「So What?」 3단 질문법의 의무 적용이다.</p> <p>모든 분석 산출물에 ① 관찰(Observation) → ② 의미(Insight) → ③ 행동(Action)의 세 질문을 적용하여, 분석이 단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p>					

<p>비교과 세부내용</p>	<p>단순한 시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분석의 실무 프로세스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구(Obsidian·Dataview·생성형 AI)는 「가설 → 큐레이션 → 비판적 분석 → 반증」의 사고 과정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단계적으로 심화한다.</p> <p>(1) 환경 구축 및 데이터 큐레이션 단계 —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 정보를 Obsidian에 축적하되, 태그·메타데이터·내부 링크를 부여하여 각 노트를 분석 가능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단계는 코드 없이 클릭 기반 템플릿으로 진행되어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데이터로 삼을 것인가'를 선별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을 기른다.</p> <p>(2) 관계 탐색 및 가설 설정 단계 — 그래프 뷰(Graph View)로 정보 간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여, 자주 연결되는 주제군·고립된 노드·여러 주제를 잇는 허브 등 자신의 관심이 향하는 패턴을 데이터로 발견한다. 학생은 이를 근거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직접 수립한다.</p> <p>(3) 정량 분석 및 비판적 검증 단계 — Dataview 질의로 자신의 데이터를 집계·필터링하여 가설을 정량적으로 점검한다(고급 DataviewJS는 희망자 한정 심화). 모든 분석 산출물에는 「So What?」 3단 질문법을 의무 적용하여, 관찰(Observation)에서 의미(Insight)를 거쳐 행동(Action)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p> <p>(4) AI 코치 협업 및 반증 단계 — AI를 거울·비평가·코치의 세 역할로 활용한다. 학생은 AI에게 분석 설계와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AI가 제기하는 반론에 맞서 자신의 가설을 반증해 봄으로써, AI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협업하는 역량을 체득한다.</p> <p>본 활동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실습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공통 공공 데이터가 아닌 '내가 모은 나의 관심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습 몰입도와 개인화 수준을 극대화한다. 둘째, 15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생에게 개인 지식관리 시스템(Second Brain)이 자산으로 남아, 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기주도 학습 기반이 된다.</p>
<p>기대효과</p>	<p>본 활동을 마친 학생은 1인당 다음 세 가지 산출물을 명확히 확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태그·링크·메타데이터로 구조화된 개인 지식베이스(Second Brain)</li> <li>② 가설 설정부터 반증까지 담은 가설-검증 보고서</li> <li>③ So What 3단 결론(관찰·의미·행동)이 포함된 데이터 분석 산출물 이다.</li> </ol> <p>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가 기대된다.</p> <p>첫째, 학생은 활동 종료 후에도 새로운 정보를 계속 축적·분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인 분석 환경을 갖춘다.</p> <p>둘째, 「가설 → 큐레이션 → 비판적 분석 → 반증」의 실무형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체득하여 전공 과제·연구 등 어떤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p> <p>셋째, 「So What?」 질문법을 통해 데이터를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사고 습관을 형성한다. 넷째, AI를 거울·비평가·코치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반증해 본 경험을 통해, AI와 비판적으로 협업하는 차세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확보한다.</p> <p>이처럼 비전공자도 코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과,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학습 자산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AI 시대 INU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uthor-in-the-Loop : AI와 함께 쓰는 창작 워크숍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4	2	4	3	5	2
모집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분과)		담당교수	이승윤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 <b>개설 목적</b></p> <p>현재 인천대학교는 &lt;AI 시대의 글쓰기 이론과 실제&gt;라는 교과목을 개편 운영 중이다. 하지만 15주라는 제한된 시간과 필수 교과 내용의 진행으로 인해 ‘AI’와 관련된 활용이나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본 프로그램은 실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를 활용한 웹툰·웹소설·게임 서사 등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p> <p>생성형 AI는 이미 학생들의 글쓰기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교실 현장의 실태는 두 극단으로 나뉜다. 한쪽은 AI에 사고를 외주(outsourcing)하여 자기 언어를 잃어가고, 다른 한쪽은 표절·윤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구를 회피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 양극단을 넘어, AI를 창작의 협업 파트너로 삼되, 사유·정서·윤리적 판단의 주도권은 인간이 쥐는 ‘주체적 글쓰기(Author-in-the-Loop)’ 모델을 운영하고자 한다.</p> <p>◎ <b>교육적 필요성</b></p> <p>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설계되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역량 패러다임의 전환: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쓰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왜 쓸 것인가를 설계하고, AI의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판별·재구성하는 메타 역량으로 이동했다. 현실적으로 기존 글쓰기 교과가 이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적 공백이 존재한다.</li> <li>② 학문적 정직성의 위기: 표절·환각(hallucination)·저작권 문제가 대학의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금지 일변도의 대응은 실효성도 낮고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올바른 활용 윤리를 체험으로 내면화하는 적극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li> <li>③ 융합·자기주도 학습 수요: AI 시대에도 여전히 ‘표현 역량’은 취업·진학·연구의 공통 기반이다. 장르·매체를 넘나드는 창작 경험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융합적 사고를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li> </ol>					
역량성취 교수법	<p>◎ <b>목표 핵심역량</b></p> <p>‘AI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라는 목표가 단순히 도구 사용 교육으로 환원되어서는 곤란하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길러야 할 핵심역량과 그것을 길러내는 교수법, 그리고 성장을 확인하는 평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리도록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핵심역량은 네 가지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습자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발상을 확장하고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하는 창의·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li> <li>②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사실성과 완성도, 그리고 진부함의 여부를 판별하여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비판적 사고역량을 키운다.</li> <li>③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다양한 도구를 운용하며 텍스트를 이미지·영상 등 다른 매체로 변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한다.</li> <li>④ 저작권과 학문적 정직성의 문제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윤리적 책임 역량을 내면화한다.</li> </ol>					

◎ **역량 성취 교수법**

본 프로그램은 목표 역량과 교수법, 평가도구를 일관되게 정렬하는 '구성적 정합성'을 핵심 설계 원리로 삼는다. 위의 목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 ① 매 회차마다 실제 창작 미션을 부여하고 학습자가 AI와 협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통해 즉각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 ② 이론적 내용은 사전 영상과 자료로 선학습하게 한 뒤 대면 시간은 온전히 실습과 합평에 집중하는 '플립러닝(Flipped Workshop)' 방식으로 운영한다.
- ③ 구조화된 피드백 시트를 활용한 '동료 합평'으로 상호 비평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강화한다. 동료 합평의 경우 창작물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를 고립시키지 않음으로써 협업의 효능감과 함께 아이디어 생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④ 프롬프트 작성에서 초고, 퇴고, 완성에 이르는 창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해하여 훈련하는 '단계적 비계 설정(Scaffolding)'을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 회차 'AI와 나의 역할 분담'을 기록하는 <성찰일지(Reflective Writing)>를 통해 학습자가 창작의 주체성과 윤리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비교과  
세부내용

회차	시간	주제	세부 내용
오리엔테이션	1h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취지·운영 안내, 진단 글쓰기, 아이스브레이킹, 도구 세팅
1회	2h	AI 글쓰기의 이해와 윤리	생성형 AI 원리 한계, 환각·저작권 개념의 이해 '윤리 가이드' 작성
2회	2h	프롬프트, 질문의 기술	페르소나·맥락·제약 설정, 좋은 질문의 조건
3회	2h	AI와 함께 쓰는 시·산문	이미지·은유 확장, 정서 표현, AI 초고 작성과 검증 개인 창작 + 1차 합평
4회	2h	서사·시나리오 스토리텔링	캐릭터·플롯 구성, 서사 구조 설계 팀 창작 워크숍
5회	2h	멀티미디어 표현 확장	텍스트→이미지·영상 매체 변환, 표현 매체 융합 실습
6회	2h	퇴고와 완성의 기술	구조화된 피드백 기반 재창작, 퇴고 2차 합평 + 최종고 작성
7회	2h	공유와 성찰	최종 발표를 위한 작품집 편집, 성과 발표를 위한 리허설 성찰일지 작성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 개인의 성장에서 출발하여 대학의 글쓰기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등의 개선 등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 표현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동시에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글쓰기 특강이 '잘 쓰는 법'에 머물렀다면, 본 프로그램은 학생이 AI를 협업 파트너로 삼아 발상을 확장하고 그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AI가 대신 써 주는 글'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여 완성한 글'을 손에 쥐게 되며, 그 과정에서 AI 시대의 글쓰기에 대해 막연히 품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효능감을 회복한다. 특히 창작과 합평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과 공유됨으로써, 학생은 취업·진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포트폴리오와 표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대학이 직면한 AI 활용 윤리 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 표절 금지라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각 작품에 AI의 기여 범위를 명시하는 'AI 활용 투명성 선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문적 정직성을 체험으로 내면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내 다른 교과와 비교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발표회를 통해 '인간이 주도하고 AI가 협업하는 글쓰기(Author-in-the-Loop)'라는 본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모델이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확산·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동의와 공감의 이루어질 수 있다면 AI 시대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서 정규 교과 편성으로 이어져 더욱 많은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영상 공장 - 고전, 시네마틱 솜품으로 환생하다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5	5	1	1	5	3
모집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 분과)		담당교수	이 은 봉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본 소모임은 AI 시대 기술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 고전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를 AI 영상 기술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1. 인문학적 상상력과 AI 기술의 융합형 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 :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전 문학의 깊이 있는 서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다.</li> <li>- 기술과 인문학의 브릿지 : ‘아날로그 콘텐츠’를 AI 영상이라는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면서, 인문학적 소양과 디지털 기술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li> </ul> <p><b>2. 디지털 스토리텔링 및 미디어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시각 자산화 : 우리 고전을 솜품, 애니메이션, 시네마틱 영상 등 트렌디한 미디어로 변환하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li> <li>- 협업 및 문제해결 능력 : 소모임원들이 함께 대본을 각색하고, AI 툴을 활용해 스토리보드를 짜고, 영상을 편집하는 일련의 프로젝트 매니징 과정을 통해 실무적 협업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li> </ul>					
역량성취 교수법	<p>본 소모임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고전 문학 각색부터 AI 영상 제작까지 전 과정을 리드하도록 아래와 같은 교수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p> <p><b>1. 프로젝트 기반 학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임원들이 ‘문학 분석 및 각색’, ‘AI 이미지/영상 생성’, ‘영상 편집 및 연출’ 등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 수행한다.</li> <li>- ‘단순히 영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명확한 프로젝트 단계를 밟아가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li> </ul> <p><b>2. 매시업(Mash-up) 및 리믹스 교수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 문학 속 은유적 표현을 생성형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각적 소성으로 변환하는 매핑 훈련을 진행한다.</li> <li>- 단순히 고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재 스타일로 재가공하여 과감한 리믹스를 유도하여 상상력을 극대화한다.</li> </ul>					

<p>비교과 세부내용</p>	<p><b>1일 차 : 고전의 재해석 및 스토리보드</b> - 고전 문학 선정, 핵심 메시지 도출 및 슷폼 분량의 시나리오 시각화 (텍스트 분석, 시나리오 각색, 스토리보드 매핑)</p> <p><b>2일 차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AI 이미지 생성</b> - 문학적 묘사를 AI 언어로 번역하고, 영상의 기반이 될 고품질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매핑 훈련, 미드저니 등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실전, 원작 의도와 어긋난 것 수정)</p> <p><b>3일 차 : AI 비디오 생성 및 모션 제어</b> - 2일 차에 생성한 정지 이미지를 영상 기술을 통해 생동감 있는 클립으로 변환 (런웨이 등을 활용한 모션 프롬프트 명령어 학습, 이미지를 비디오 클립으로 변환 및 생성)</p> <p><b>4일 차 : AI 오디오 생성 및 영상 편집</b> - AI 보이스, 효과음, 배경음악을 생성하고 비디오 클립과 싱크를 맞춰 가편집 (수노 등을 활용한 배경음악 생성, 캡컷 등 편집 툴로 가편집)</p> <p><b>5일 차 : 최종 시사회 및 성찰</b> - 프로젝트 최종본 마스터링 및 성과 공유를 통한 피드백과 성찰 (완성된 고전 문학 AI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상호 평가)</p>
<p>기대효과</p>	<p>본 소모임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AI 기술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실무 역량을 기르게 함과 동시에 우리 고전 문학을 현대적 시각 자산으로 재창조하는 인문학적 성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최종 결과물과 프롬프트 데이터를 학내에 공유함으로써 교내 융합형 학습 문화를 선도하는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p> <p><b>1. 학생 역량 측면 : 차세대 융합형 크리에이터 양성</b> -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AI 툴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리얼 월드 프로젝트’를 경험함으로써 미래 사회와 취업 시장이 요구하는 생성형 AI 프롬프트 제어 역량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p> <p><b>2. 학문 문화적 측면 : 우리 고전 문학의 현대적 자산화</b> - 한자어나 고어가 많아 학생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 고전 문학을 슷폼, 시네마틱 영상 등 트렌디한 미디어 포맷으로 재탄생시켜 친숙함을 높일 것이다.</p> <p><b>3. 대학 공동체 및 대외적 측면 : 성과 공유를 통한 학습 문화 확산</b> - 인문학과 AI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학생 주도적 학습 소모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대학 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올바른 혁신적 교육 모델의 선례를 만들 것이다.</p>

과목명	시를 활용한 토익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5	5	4	2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영어 분과)		담당교수	이은재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대학 교양영어에서 TOEIC 수업은 순수 학문적 이상과 일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문장구조는, 시제는, 동명사는, 어휘는... 이런 세세한 기초적 수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에 TOEIC을 공부한다는 것은 실무 영어를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 가장 확실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기 중 인천대 학생들이 과외 시간을 내어 TOEIC를 공부 하는 것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영어에 흥미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기초부터 실력을 쌓아 단계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미 준비를 해 오던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TOEIC 수업을 학교 안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p> <p>이런 인천대 학생별 영어 수준, 취약 영역, 문제 접근 방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수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어떤 학생은 문법 및 어휘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학습자는 Listening 이해, Part 7 독해, 시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p> <p>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오답 유형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이 필요하다. 시는 학습자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여 취약 영역을 세분화하고, 수준별 문항, 해설, 복습 자료, 피드백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TOEIC 교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p> <p>본 교수·학습 방안의 목적은 첫째, 학습자의 TOEIC 취약 영역을 진단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있다. 둘째, 문제풀이 과정에서 오답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점수 향상뿐 아니라 시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셋째, 시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있다.</p>					
역량성취 교수법	<p>-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성취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용한다.</p> <p>-AI이용시 명령어를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 학습이 되도록한다.</p> <p>-명령어의 4가지 요소, 즉 스타일 지정, 포맷설정, 제한두기, 역할 부여를 시에게 요구한다.</p> <p>-시에게 역할지정-목표제시-짧은 반복명령어 생성-형식에서 제시-단계적 요청-수정요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량 성취에 중점을 둔다.</p> <p>첫째,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한다. 학습자는 진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시가 제공하는 맞춤형 문제와 피드백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간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도록 안내한다.</p> <p>둘째,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교수법을 적용한다. TOEIC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푸는 방식이 아니라,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전략을 찾는 과정 중심 수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오답에 대해 어떤 문법 요소를 놓쳤는지, 어떤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혹은 어떤 청취 정보에서 혼동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p> <p>셋째, 의사소통 역량 및 비판적 사고 역량을 신장하는 교수법을 반영한다. 학습자는 짝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풀이 근거와 오답 원인을 설명하고, 동료와 비교·토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시가 제공한 해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정보 수용 능력뿐 아니라 판단과 재구성의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p> <p>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교수법을 적용한다. 학습자는 시 도구를 활용하여 진단, 문제풀이, 해설 확인, 복습 자료 생성 등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p>					

<p>비교과 세부내용</p>	<p>본 교과에서는 문제풀이 자체보다 오답 분석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학습자는 문제를 푼 뒤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어떤 전략이 부족했는지, 이후 유사 문항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시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답 유형 분류, 추가 유사 문제 제시, 복습 목록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교수자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해석하고,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1일 90분수업으로 구성한다)</p> <p>이 수업 방식은 TOEIC에서 학생들의 이해력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자의 강의-평가(assessment)-복습(review)의 3단계 교수법의 장점은 유지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시를 활용하게하고 문제분석을 팀단위를 구성하고 다시 팀원 안에서 어휘, 문법, 구문 해결 리더를 정하여 구성원 간 지식을 공유하게하여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력을 증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다.</p> <p><b>도입 (10분):</b> 교수자는 지난 시간 학습을 점검하고 과제 (복습)을 확인한다. 그날 공부할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p> <p><b>교수자 수업 (25분):</b> 학습내용을 가르친다.</p> <p><b>진단 및 문제인식 (25분):</b> 교수자는 가르친 내용에 해당하는 진단 문제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문제를 풀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약점을 기록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약점을 잘 기록했는지 확인하고 더 구체적 진단을 내려준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feedback을 참고하여 기록한 약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집중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4가지 요소 (스타일지정, 포맷설정, 제한두기, 역할부여)를 이용해 구체적 명령어로 만든다. 예를 들면 “Part 5에서 주어-동사 수 일치에 해당하는 문제를 30문제 내줘.” 또는 “part 3에서 영국식 억양으로 듣기 문제를 내줘.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틀리면 다시 들려줘.”</p> <p><b>집중문제풀이와 오답분석 (25분):</b> 학습자는 명령어에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고 팀별 모임에서 자신의 학습내용과 오류에 관해 설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할 수 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교수자에게 질문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집중 문제 풀이를 보고 보충할 부분을 과제로 제시한다.</p> <p><b>정리단계:(5분):</b> 학습자는 교수의 분석을 통해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한다.</p>
<p>기대효과</p>	<p>첫째, 학습자별 취약 영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TOEIC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 수업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p> <p>둘째, 문제풀이 과정에서 오답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시험 문항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p> <p>셋째, 시를 활용한 반복 학습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학습 과제를 계획·실행·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p> <p>넷째, 시 활용 과정에서 디지털 리더러시와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안내 아래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p> <p>다섯째, 교사는 학습자의 수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피드백과 개별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p> <p>종합하면, 본 방안은 TOEIC 성취 향상뿐 아니라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디지털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형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햄릿』 속 인간 심리, AI에게 묻다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3	3	4	3	5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영어분과)		담당교수	남 정 현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햄릿』 속 인간 심리, AI에게 묻다’는 Hamlet 작품을 중심으로 인간의 복합적인 내면과 심리 갈등을 탐구하고, 이를 현대 심리학 및 생성형 AI와 융합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는 단순히 고전 문학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햄릿, 오페리아, 클로디우스, 거트루드 등 주요 인물들의 불안, 우울, 죄책감, 욕망, 자기방어 기제와 같은 심리 상태를 심리학 이론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감정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하며, 자신과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공감과 자기 이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p> <p>또한 본 모임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AI에게 등장인물의 심리를 질문하고 다양한 해석을 비교·분석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AI의 답변을 단순 수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텍스트와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AI의 해석이 타당한지 또한 검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판별 능력을 기른다. 특히 오늘날 AI 기술이 교육 및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에,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의 해석과 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모임은 고전 문학, 심리학, AI 리터러시를 융합한 인문학 기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p>					
역량성취 교수법	<p>‘『햄릿』 속 인간 심리, AI에게 묻다’는 고전 문학과 심리학, 생성형 AI를 융합하여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첫째, 협업인성은 토론 중심 수업과 역할극 활동을 통해 강화된다. 학생들은 『햄릿』 작품 속 역할극을 통해 5막 5장 가운데 돌아가면서 햄릿, 오페리아, 클로디우스, 폴로니우스, 거트루드 등등의 역할을 맡아 대사를 실감나게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함께 분석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공유하며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공감 능력과 협업 태도를 기르게 된다. (2) 둘째, 지식탐구는 『햄릿』 원문과 심리학 이론, AI가 제시한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향상된다. 프로이트, 융, 방어기제 이론 등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을 탐구하며 문학 텍스트를 다층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른다. (3) 셋째, 문제해결은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류나 한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AI가 한 햄릿의 심리 분석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하며 텍스트 근거와 학습자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4) 넷째, 의사소통은 발표, 토론, AI 프롬프트 작성 및 피드백 활동을 통해 강화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조정하며 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5) 다섯째, 창의융합은 문학과 심리학, AI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된다. 학생들은 전통적 문학 읽기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융합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6) 마지막으로 도전창조는 AI 시대의 학습 방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강화된다. 익숙한 정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 질문을 생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도전 정신과 창조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p>					

비교과 세부내용	1주차	1교시: 오리엔테이션 및 작품 소개 셰익스피어와 『햄릿』 배경 이해 억압/복수/죄책감/나르시시즘/우울/조종/불안/광기 연기 2교시: 1막 1장~1막 5장 역할극 및 토론 3교시: 2막 1장~2막 5장 역할극 및 토론	각 장마다 돌아가며 등장인물의 역할을 다양하며 맡으며 텍스트 깊이 읽기와 토론
	2주차	1교시: 3막 1장~3막 5장 역할극 및 토론 2교시: 4막 1장~4막 5장 역할극 및 토론 3교시: 5막 1장~5막 5장 역할극 및 토론	각 장마다 돌아가며 등장인물의 역할을 다양하며 맡으며 텍스트 깊이 읽기와 토론
	3주차	상호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햄릿 영화 관람 및 토론	영상 텍스트에서 표현한 햄릿 작품은 어떻게 다른가를 서로 토의한다
	4주차	(1) Hamlet – 우울, 과잉사고, 존재 불안, 자기혐오 ■ Hamlet은 우유부단한가 전략적인가? ■ 아니면 지나치게 의식이 예민한 사람인가? ■ 복수보다 존재의 의미를 고민한 걸까? 죽음 충동/회피 심리 (2) Claudius – 죄책감 + 권력욕 + 자기합리화 ■ 그는 완벽한 악인인가? ■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인가? 권력 중독/불안/도덕적 분열 (3) Gertrude – 의존성? 현실 회피? 생존 전략? ■ 왜 남편 죽은 직후 재혼했을까? ■ 사랑 때문인가? ■ 권력 유지 때문인가? 감정 억압/정치적 생존 본능 (4) Ophelia – 감정 억압과 붕괴 ■ 왜 결국 무너졌는가? ■ 진짜 미친 것인가? ■ 사회적 억압의 결과인가? 가스라이팅/정체성 상실/우울/트라우마 아버지의 통제, Hamlet의 냉대, 궁정 권력 구조 속 자아 붕괴 (5) Polonius – 통제욕과 가짜 지혜 ■ 현명한 조언자인가? ■ 아니면 통제광인가? 과잉 간섭/통제 욕구/자기 과시/권위주의 딸 감시/염탐/조언 중독 (6) Laertes – 충동적 복수 심리 ■ 생각 과다형 Hamlet과 행동 과다형 Laertes 중 “누가 더 위험한 인물인가?”	조별 활동 등장인물 중 1인을 선택해 시를 활용하여 각자 궁금한 질문을 하면서 심리 분석을 한다. 이때 시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5주차	AI 기반의 탐구 마무리 및 발표	조별활동 조별발표
기대효과	인간의 심리를 가장 섬세하게 잘 묘사한 셰익스피어의 햄릿, 심리학, 생성형 AI를 융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성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햄릿』 작품을 역할극을 통해 직접 햄릿, 오페리아 역을 맡아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경험하는 텍스트 읽기 및 작품 속 감명 깊은 부분을 함께 토론한 후, 등장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시에게 분석 요청하여 시의 답변의 오류 혹은 한계를 비판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로써 인간 내면과 감정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성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심리 해석을 『햄릿』 과 심리학 이론 바탕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 판별 능력과 시 리터러시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시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근거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문제해결력 역량과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과 협업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며, 문학을 시와 연결하여 새롭게 해석해 봄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도전적 사고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영화보GO - 뽀얀 영화는 패스 하Go, 유쾌한 유럽 영화 보Go!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2	5	5	3	3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핵심분과)		담당교수	김 계 영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탄생 초기 산업의 결과물로 등장한 영화는 이제 명실공히 ‘제7의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영화는 문학작품과 더불어 그 영화를 산출한 나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며 단순한 소비의 차원을 넘어 문화 연구의 훌륭한 텍스트가 되었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세상,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p> <p>인공지능 기술이 서사의 생성과 소비 방식을 알고리즘적으로 규격화하고, 지배적 AI 모델들의 학습 데이터가 영미권의 가치관, 할리우드식 플롯, 그리고 자본주의적 상승 서사에 편향된 현시대에, 유럽 영화 중심의 외국 영화를 시청하고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문화적 향유를 넘어 영미권 중심의 보편성 신화를 해체하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시각적 문해력을 함양하며 인간 특유의 비판적 사유 능력을 보존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p> <p>알고리즘과 예측 가능성이 지배할 미래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으로 생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식론적 무기를 확보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p>					
역량성취 교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회차 영화 전반에 대해 교수자가 감독, 시대 배경, 흥행 및 수상실적, 국내 개봉 사항 등과 관련된 기본 정보와 간단한 시놉시스를 제공한다.</li> <li>• 비교과 활동에는 시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영화 전편을 감상하기는 힘들고, 교수자가 준비한 편집본을 감상하고 이후 각자의 간단한 느낌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단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한 줄 평(20자 평)과 별점 매기기</li> <li>- 가장 인상적인 장면 또는 대사 선택과 그 이유 설명으로 진행한다.</li> </ul> </li> <li>• 각자의 감상 교환에서 언급된 한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적당한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교수자가 주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li> <li>• 토론 진행 후 토론 전후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li> <li>• 가장 참신한 해석을 해주었거나,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끈 사람을 참가자들의 투표로 선정해 소액의 기프티콘 선물하는 방법 등을 통해 모임의 활력을 높인다.</li> <li>• 함께 보기 희망하는 영화가 있을 시 프로그램 부분 변경은 가능하다.</li> <li>• 최종 결과 발표는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제작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ul>					

비교과 세부내용	주차	활동	내용
	01	영화보GO 활동안내	영화 콘텐츠 이해하기, 소모임 활동 규칙 안내
	02	누벨 바그 영화	누벨바그 영화와 현대 영화와의 접점
	03	레미제라블	현대의 ‘불쌍한 사람들’ 과 OSMU
	04	아멜리에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하는 아기자기한 상상력
	05	알로 슈티	지역 대비를 통한 지방, 언어, 편견의 문제
	06	언터처블-1%의우정	문화자본과 아비투스/ 편견을 깨는 우정
	07	컬러풀 웨딩즈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유쾌한 갈등 극복
	08	거꾸로 가는 남자	미러링을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일상의 차별
	09	블레이드 러너 vs 타인의 삶	할리우드 영화와 유럽 영화 비교
	10	종강회	총평 및 결과 발표, ‘나의 인생 영화’ 선정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다양성 및 세계관 확장 - 할리우드 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유럽의 역사와 사회, 일상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낯선 언어와 이국적인 정서를 자주 접하면서 문화적 편견이 줄어들고,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열린 태도를 기르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li> <li>• 예술적 감수성과 미적 안목 심화 - 기승전결이 뚜렷한 할리우드식 플롯 대신, 열린 결말이나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는 유럽 영화 특유의 느리고 사유적인 서사 구조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미장센, 독창적인 카메라 워크, 실험적인 편집 기법을 관찰하며 시각 예술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시각적 문해력'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li> <li>• 비판적 사고 및 철학적 성찰 능력 강화 - 유럽 영화는 인간의 실존, 고독, 윤리적 딜레마, 계급 갈등 등 무거운 철학적·사회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이는 이미지의 수동적 소비에서 스스로 감독의 연출 의도,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자문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운다.</li> <li>• 인문학적 유대감과 정서적 위로 - 자극적인 상업 영화와 달리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다루는 영화를 매개로 대화하기 때문에,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고 참여자 간의 인문학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li> <li>• 공감 소통 능력 기르기 - 정답이 없는 예술 영화를 두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수십 가지의 시선이 존재함을 깨닫고, 토론을 통해 경청과 설득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문화 산업 진입 역량 향상 - 단순히 취미로 영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누벨바그(영화사), OSMU(콘텐츠 확장성),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의 대조(콘텐츠 비평 및 시장 분석), 편집본 활용(영상 큐레이션 및 편집)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산업 실무의 빌드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li> </ul>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포스트휴머니즘 문학으로 AI 시대 성찰하기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3	3	4	2	5	3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 분과)			담당교수	양현진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인공지능은 인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 불안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이 기술에 의해 소외되지 않고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문학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비교과는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문학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AI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문학적 통찰력을 기르고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I가 이끄는 미래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인간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극복 : 기계와 동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에서 인간성을 역동적으로 재정의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문학(SF소설, 의동물화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소모임을 통해 AI시대의 인간과 세계를 성찰하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도전정신 신장</li> <li>2. 예지적 통찰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다가올 미래의 딜레마를 서사로 구현한 포스트휴머니즘 문학을 탐독하고 토론하며, 단순히 기술 변화를 뒤쫓는 소비자가 아닌,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적 통찰력'을 지닌 주체적 인재로 성장</li> <li>3.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감수성과 다원성 확장 : AI, 로봇, 동물 등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을 지구 생태계의 동반자로 수용하는 타자 포용력과 공존의 시민 의식 함양</li> </ol>					
역량성취 교수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가지 층위 독서 활동 — '서사 문학 감상'과 '이론 텍스트 이해' 병행을 통한 사유의 깊이 확장 :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인물들이 처한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한 후, 이 작품에 대한 이해·해석·적용을 심화할 수 있는 이론 텍스트를 제공함. 문학 텍스트와 이론 텍스트가 서로 넘나들며 상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텍스트 이해가 단순 감상과 이해를 넘어 독자적인 비평과 학술적인 사유로 확장되도록 함</li> <li>2. 독서 토론 및 현실 적용 딜레마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역량 및 문제해결역량 강화 : 문학 텍스트 및 이론 텍스트를 독서한 후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발굴해 발제를 준비하고 이를 근간으로 소규모 토론을 진행함.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만나며 기존 관점을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함</li> <li>3. 독서 토론 후 에세이를 작성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표현 능력 신장</li> <li>4. 에세이에 대한 동료 및 교수자 피드백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고, 글쓰기 의욕 및 자신감 고취</li> <li>5. 한국 및 해외 작품, 단편과 장편, 영화 등을 적절히 안배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li> </ol>					

1. 본 비교과는 총 15시간 활동으로 구성됨 (\*1회 당 2-3시간, 5-6회차 구성)
2. 활동 기간: 수강 학생들의 참여 가능 일정에 맞춰 8-11월 사이에 활동
3. 활동 내용: 소규모 독서토론이 주요활동이며, 1-2회의 에세이 작성 및 강평(피드백)이 실시됨
4. 텍스트 선정 : 수강 학생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

아래는 교수자가 제안하는 예시 주제 및 텍스트임

	추천 주제	추천 텍스트 및 핵심 논제
비교과 세부 내용	1 <b>[인간 주체성에 대한 탐구]</b>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	[문학] 필립 K. 딕 『사기꾼 로봇(Imposter)』 『마이내리티 리포트』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김보영 『종의 기원담』
		[이론] 로버트 새폴스키 『행동』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논제] 인간의 행동이 환경·유전자·호르몬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허상인가?
	2 <b>[종간 차별:인간과 비인간의 경계]</b> 인간중심주의의 폭력성	[문학] 서이제 <두개골의 안과 밖>, 김기창 <약속의 땅>
		[이론] 존 그레이 『하찮은 인간, 호모라피엔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3 <b>[확장된 신체와 인공적 마음]</b> 누가 인간인가?	[문학] 김보영 『얼마나 닮았는가』, 가즈오 이시구로 『클라라와 태양』
		[이론] N.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논제] 기술과 결합하여 유기체적 한계를 넘어선 존재(사이보그, 휴머노이드)는 인간인가?
	4 <b>[대안적 윤리와 연대]</b> 비인간과의 공존	[문학] 천선란 『천 개의 파랑』, 테드 창 <소프트웨어 객체들의 생애 주기> 앤디 위어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론] 도나 해러웨이 『종과 종이 만날 때』 <사이보그 선언> <반려종선언>
		[논제] 미래 사회에는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기대  
효과

1. 문학 텍스트와 이론 텍스트를 겹쳐 다룸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에 과학적·철학적·역사적·심리학적 논리를 접목, 이질적인 분야를 연계해서 고찰하는 **창의적 사고를 발산하고 융복합적인 학습 태도를 습득**
2. **탈인간중심주의적 다원성 및 타자 포용력 신장** : 비인간 주체들을 도구화하지 않고 공존을 모색하는 포스트휴먼 감수성과 윤리의식 함양
3. 기술과 발전에 대한 **인문학적 사색을 근간으로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도전 정신 함양**
4. 독서 토론 및 현실 적용 딜레마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역량 및 문제해결역량 강화**
5. 에세이 작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표현 능력 신장, 글쓰기 의욕 및 자신감 고취**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철학과 디자인 씽킹 가이드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3	3	5	2	5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핵심교양·글쓰기 분과)		담당교수	송대현·양근용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생성형 AI의 보편화와 에이전트 AI의 고도화는 대학생의 학습 방식과 미래 역량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 직업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는 9,200만 개의 기존 직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1억 7,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공감·맥락적 판단·윤리적 사고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AI를 단순 도구로 소비하거나, AI의 철학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성찰이 미비한 상황에서 탈숙련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에 본 비교과 프로그램은 AI에 관한 철학적 기반 탐색과 인간 중심 AI 응용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비판적인 AI 인식과 통합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p> <p>우선 기반 학습으로서 &lt;AI, 철학자와 마주하다&gt; 영역에서는 AI에 관한 철학적·윤리적·사회적 쟁점을 독서토론 방식으로 탐색한다.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 감정 교류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책임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AI 리터러시의 윤리적 차원을 함양한다. 그리고 응용 학습으로서 &lt;AI와 인간 중심 디자인 씽킹 가이드&gt; 영역에서는 디자인 씽킹의 원리를 AI 활용 맥락에 접목하는 방식을 독서토론과 실습으로 이해한다. 특히 공감-정의-발상-프로토타입-테스트의 5단계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하며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균형을 통해 '통합적 사고' 역량을 습득한다.</p> <p>두 영역의 팀 티칭을 통해 학생들은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융합적으로 활용하며, 인간 중심의 윤리적 성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p>					
역량성취 교수법	<p><b>1. 하브루타(Havruta) 독서토론</b>            도서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2인 1조 동료 토론 → 확장 토론 → 전체 공유의 3단계로 진행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p> <p><b>2. 질문 중심 학습(Question-Based Learning)</b>            학생 스스로 AI의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 의제를 설계함으로써 창의융합 역량을 계발한다.</p> <p><b>3. 디자인 씽킹 워크숍(Design Thinking Workshop)</b>            AI 도구를 각 단계(공감·정의·발상·프로토타입·테스트)에 실제 적용하는 테스트 통해 문제 해결·도전창조 역량을 증진한다.</p> <p><b>4. 성찰 저널링(Reflective Journaling)</b>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AI와 인간의 협업에 관한 개인 성찰 글쓰기를 수행하여 지식탐구 역량과 메타인지 능력을 배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교과 세부내용</p>	<p>◆ <b>기반 학습 : AI, 철학자와 마주하다 (총 7시간)</b>          도서: 『인공지능과 인간에 관하여』(송대현 편집 및 저술, 타우마제인 12호, 2024)          + 『도덕적인 AI』(암스트롱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1.5h): AI와 인간은 감정을 나눌 수 있나?              인공지능도 도덕·법률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활동: 하브루타 토론 - AI의 감정 교류, 도덕·법률 주체 가능성 찬반 논거 구성</li> <li>• 1회차(1.5h): 대학의 고민, AI는 위협인가 혁신인가? / 생성형 AI가 가져올 사회적 잉여              활동: 당교 사례 분석 → 대학 AI 정책 개선안 팀 도출</li> <li>• 2회차(2h): 당신은 로봇을 사랑할 수 있나요? / 스포츠에서 AI 심판은 정당한가?              활동: 역할극 토론 - 인간-AI 감성적 관계의 윤리적 경계 탐색</li> <li>• 3회차(2h): 인공지능의 미래 - 종합 토론              활동: 전체 토론 및 팀별 '미래 AI 윤리 선언문' 작성·발표</li> </ul> <p>◆ <b>응용 학습 : AI와 인간 중심 디자인 씽킹 가이드 (총 8시간)</b>          도서: 『AI와 디자인 씽킹 가이드』(허웅·이한진) + 『디자인 씽킹 바이블』(로저 마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회차(1.5h): 디자인 씽킹 마인드셋 / 문제를 보는 렌즈와 아이디어 합창              활동: 지식생산 필터 이해, AI 보조 브레인스토밍 실습</li> <li>• 4회차(1.5h): 사용자와의 깊은 대화 방법 (공감·정의 단계)              활동: AI 인터뷰 도구 활용 공감 맵 작성, 핵심 문제 정의문(HMW) 도출</li> <li>• 5회차(1.5h): 신속한 실험의 미학 + 지속 가능한 우위 창출 (발상·프로토타입 단계)              활동: AI 기반 아이디어 발산 → 저정밀도 프로토타입 제작</li> <li>• 5회차(1.5h): 맞춤형·지속 가능한 혁신의 설계 + 디자인 씽킹 모형과 수평적 사고 (테스트·반복)              활동: 팀별 프로토타입 테스트 → AI 피드백 루프 활용 개선</li> <li>• 6회차(2h): 균형 잡기와 개인을 위한 디자인 씽킹 - 최종 발표 및 성찰              활동: 전체 결과 공유, 개인 성찰 저널 완성 및 피드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I 윤리 감수성 및 비판적 사고 강화              인공지능의 철학적·윤리적 쟁점을 독서토론으로 탐색함으로써 학생들이 AI 기술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른다. 단순한 AI 사용자를 넘어 인간 중심의 AI 윤리 설계자 관점을 형성한다.</li> <li>2. 창의융합 역량 및 통합적 사고 계발              디자인 씽킹의 원리와 AI 활용을 융합하여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통합적 사고' 역량을 계발한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창의성·복잡한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li> <li>3. AI 협업 리터러시 및 실용 역량 습득              디자인 씽킹 5단계 전 과정에 AI 도구를 직접 적용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고 그 한계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AI 리터러시를 체득한다.</li> <li>4.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향상              팀 기반 토론·워크숍·발표 활동을 통해 논리적 설득, 경청, 협의 등 실질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공 학생 간 협업을 통해 융합적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한다.</li> <li>5. 대학 교양교육 모델 정립에 기여              철학적 AI 성찰과 실용적 AI 활용을 통합한 본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는 인천대의 교양 교과목 신설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li> </ol>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는 답을 주지만 인간은 질문으로 성장한다: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찾아가는 나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3	5	1	5	4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			담당교수	박 상 원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의 독점과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등 새로운 형태의 권력 이동을 가져오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행동, 소비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대학생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p> <p>『세이노의 가르침』은 개인의 자립, 자기책임, 독립적 사고, 집단 권력에 대한 저항을 강조한다. 본 프로그램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AI 시대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가치와 주체성을 탐구하도록 돕고자 한다.</p> <p>특히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넘어, 철학의 회의주의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검증하며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독서와 토론, AI 오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기술에 지배되지 않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p>					
역량성취 교수법	<p>1. AI 기반 탐구학습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특정 사회 문제와 미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후 AI가 제공한 정보의 한계와 편향성을 검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p> <p>2. 독서토론 학습 『세이노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성, 경제적 자립, 책임의식, 인간관계, 성장 마인드셋 등을 주제별로 토론한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한다.</p> <p>3. 문제해결 프로젝트 AI 시대의 핵심 권력(플랫폼, 데이터, 알고리즘, 자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권력에 NO라고 말하는 주체적 인간을 만든다.</p> <p>4. 성찰적 글쓰기 매 차시 활동 후 자기성찰 에세이를 작성하여 자신의 가치관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p>					

<p>비교과 세부내용</p>	<p>1-2주차 : AI 시대의 권력은 어디로 이동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li> <li>• AI 시대의 사회 변화 이해</li> <li>• 플랫폼과 데이터 권력 구조 분석</li> <li>• 토론 : &lt;AI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통제하는가?&gt;</li> </ul> <p>3-4주차 : 세이노가 말하는 독립적 인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노의 가르침』 핵심 내용 분석</li> <li>• 자기책임과 자기결정권의 의미 탐구</li> <li>• 토론 : &lt;왜 사람은 권력에 복종하는가?&gt;</li> </ul> <p>5-6주차 :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사고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 활용 실습</li> <li>• AI 답변의 오류와 편향 분석</li> <li>• 토론 : &lt;AI가 답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gt;</li> </ul> <p>7-8주차 : 돈, 노동, 그리고 미래 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와 일자리 변화 이해</li> <li>• 세이노의 경제관과 자기계발 철학 탐구</li> <li>• 미래 직업 설계 워크숍</li> </ul> <p>9-10주차 : 인간다움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 탐구</li> <li>• 공감, 윤리, 책임, 침묵, 사유의 시공간, 창의성에 대한 토론</li> <li>• 개인 실천계획 작성</li> </ul> <p>11-12주차 : AI 시대의 인권 선언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프로젝트 발표</li> <li>• 「AI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원칙」 작성</li> <li>• 성찰 공유 및 수료</li> </ul>
<p>기대효과</p>	<p>첫째, 학생들은 AI 기술의 원리와 영향력을 이해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아닌 비판적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된다.</p> <p>둘째,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p> <p>셋째, 독서와 토론, AI 활용 실습을 결합한 융합형 학습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다.</p> <p>넷째, AI 시대의 핵심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p> <p>다섯째,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AI 시대의 인격 선언문」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원칙과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 협업 코딩으로 만드는 나만의 학습 도구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5	4	3	2	4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글쓰기 분과)		담당교수	윤 속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생성형 AI 시대의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히 AI에게 답을 얻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며, AI와 협업하여 실제 산출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요약, 번역, 과제 작성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데 머물고 있으며, AI를 문제해결과 제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험은 부족한 편이다.</p> <p>본 프로그램은 코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협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도구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 과제 관리, 발표 연습, 독서 기록, 글쓰기 점검, 팀프로젝트 관리 등 자신의 실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웹 기반 도구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코드를 암기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기능과 조건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실행·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한다.</p> <p>이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 분야에 적합하다. 학생들은 막연한 불편함을 구체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문제의 원인과 사용자를 분석하며, 해결 도구의 기능과 사용 흐름을 설계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 관심 분야, 학습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도구를 제작함으로써 AI 기술과 개인의 학습 맥락을 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를 단순한 정답 생성기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함께 수행하는 협업 파트너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p>					
역량성취 교수법	<p>본 프로그램은 문제중심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결합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학습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 가능한 문제문장으로 정리한다.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문제의 배경, 사용자, 필요한 기능, 화면 구성, 사용 흐름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AI에게 맥락, 목적, 조건, 제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프롬프트 설계 역량을 익힌다.</p> <p>수업은 강의보다 실습과 피드백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웹 템플릿, 프롬프트 예시, 오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사용 환경을 활용하여 별도의 유료 도구 없이 단일 웹페이지 형태의 학습 도구를 제작한다. 제작 범위는 비전공 학생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HTML 기반 프로토타입으로 제한한다.</p> <p>학생들은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기록하며, 수정 요청을 반복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을 통해 도구의 사용성, 명확성,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결과물을 개선한다. 교수자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문제정의의 구체성, AI 활용 과정의 적절성, 수정·보완 과정의 성실성, 최종 발표의 논리성을 중심으로 피드백한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기획력, 비판적 검토 능력,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성취하도록 돕는다.</p>					

<p>비교과 세부내용</p>	<p>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협업하여 자신만의 학습 도구를 제작하는 실습형 부트캠프로 운영한다. 전체 과정은 문제 발견, 도구 기획, AI 협업 코딩, 실행 검토, 피드백 반영, 최종 발표의 흐름으로 구성된다</p> <p>1단계 - AI 협업 코딩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한다. 학생들은 코딩 지식이 없어도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통해 간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고, AI 활용 시 필요한 책임 있는 태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배운다.</p> <p>2단계 - 자신의 학습 문제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과제 마감 관리, 시험 복습 계획, 발표 준비, 독서 기록, 글쓰기 점검, 팀프로젝트 역할 분담 등 대학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학생들은 문제정의 워크시트를 작성하며 대상 사용자, 문제 상황, 기존 해결 방식의 한계, 필요한 기능을 정리한다.</p> <p>3단계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학습 도구의 기능과 화면을 설계한다. 학생들은 AI에게 자신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버튼, 입력 항목, 결과 출력 방식, 화면 구성 등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AI에게 명확한 요청을 하는 법과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익힌다.</p> <p>4단계 - 교수자가 제공한 기본 템플릿을 바탕으로 AI 협업 코딩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AI에게 기능 추가, 오류 수정, 디자인 개선, 사용 흐름 정리 등을 요청하며 단일 웹페이지 형태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p> <p>5단계 - 동료 학생들이 서로의 도구를 사용해 보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 항목은 사용하기 쉬운지, 목적이 분명한지,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로 구성한다.</p> <p>6단계 - 피드백을 반영하여 도구를 수정·보완하고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학습 도구를 발표하며,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공유한다.</p> <p>최종 산출물은 개인 또는 팀별 학습 도구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 기록지, 발표 자료로 구성한다.</p>
<p>기대효과</p>	<p>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단순한 답변 생성 도구가 아니라 문제해결과 제작을 위한 협업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코딩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자연어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실행·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제작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p> <p>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문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기능을 설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안을 시도하며, 오류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기르게 된다.</p> <p>동료 피드백과 최종 발표 과정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성찰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AI 활용 과정의 장점과 한계를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활용 태도를 함께 기르는 데 기여한다.</p> <p>나아가 본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학습 도구는 개인 학습 관리, 수업 활동, 팀프로젝트,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장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AI와 협업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정의 능력, AI 협업 능력, 디지털 기획력, 실행 검토 능력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Space Challenge - 행성 기지 Forta Astri 구축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4	4	2	3	5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핵심분과)		담당교수	정경숙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해당 비교과 과정에서는 태양계 행성 내 인류 거주 기지 형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제안한다. 곧 다가올 우주 향해 시대를 대비해서, 가깝게는 달 기지를 넘어 내행성인 화성 기지, 외행성의 위성에서의 기지 건설 및 운용에 대한 구성 요소를 기획하고 실행을 위한 운용안을 제안한다.</p> <p>AI라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의 기본 지식과 참여 구성원 개별 지식을 연결해서, 지구 밖 외계 행성 환경에서의 생명체 거주 가능 환경 구축이라는 구체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도출하고, 해결책 실행 기획, 운영 과정에도 자기주도적 역량을 도출하도록 한다.</p>					
역량성취 교수법	<p>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탐구, 해당 지식의 융합, 개별 전공 지식과의 연계, 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출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창의적 결과물의 기획, 설계, 운영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한다.</p> <p>해당 행성 기지 건설 및 이주 등에 대한 기획은 행성의 환경적 조건, 기지 건설의 구성 요소, 기술적 구조의 설계, 자원의 확보 및 조달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AI 기술 환경과 도구를 이용해서, (1) 관련 분야 정보 수집 (2)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한 패턴의 인식 (3) 정보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연결주의적 상호작용, 피드백에 대한 이해 (4) 알고리즘의 문화적 결과물 도출 (5) 구체적 결과물 도출 등으로 운영한다.</p> <p>AI 기술 도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도출 결과의 타당성 여부 확인, 최종 결과물 구성의 시각화 등 최종 활동의 결과물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p>					

비교과 세부내용	<b>활동 내용</b>	
	1차	개요 - 전체 운영 소개 및 참여구성원 파악
	2차	지구 생명체의 특성 - 생성의 다양한 조건, 생명체 거주 영역 HZ
	3차	지구 밖 환경 - 달, 화성 : AI 도구 활용 - 자료 조사
	4차	지구 밖 환경 - 행성의 위성들 : AI 도구 활용 - 자료 조사
	5차	달 기지 환경 및 지구화 조건 : AI 도구 활용 - 자료 조사
	6차	화성 기지 환경 및 지구화 조건 : AI 도구 활용 - 자료 조사
	7차	외행성계 위성 환경 및 지구화 조건 : AI 도구 활용 - 자료 조사
	8차	기지 건설 일반 - 형태, 재질, 구성, 유지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안
	9차	생활 환경 일반 - 에너지, 식량, 이동, 의료, 영역, 생태계 순환 등
	10차	기지 사이트 결정 및 건설 최종안 정리 - 최적화 조건 도출
	11차	발표 자료 준비 - AI 도구 활용 : 기획 및 구성 / 오케스트레이션
	12차	발표 자료 준비 - AI 도구 활용 : 시각화
	13차	발표 자료 준비 - AI 도구 활용 : 시각화
	14차	결과물 발표 - AI 도구 활용 : 발표 자료 정리 및 피드백
15차	결과물 발표 - 최종 결과물 확인	
기대효과	<p>해당 비교과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은</p> <p>(1) 관련 교과목(과학기술명저읽기)의 토론 활동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테라 포밍, 즉 지구화 과정에 대한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해당 최종 결과물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이후의 해당 활동에 또다른 피드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p> <p>(2)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획/공모 등의 학술/문화 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주제는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도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주 향해 시대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며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p> <p>(3) 해당 주제의 결과물은 기록으로 아카이빙 되고 향후 관련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단계적 진화 및 활동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및 구성한다.</p>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교과서엔 없는 그 말: 스크린 비즈니스 영어 × ChatGPT 실전 롤플레이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2	4	5	2	5	2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영어분과)		담당교수	안수진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b>1) AI 시대, 비즈니스 영어의 새로운 요구</b>            Chat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영어 번역·교정은 누구나 손쉽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뉘앙스, 격식 수준, 화용적 판단이다. "You'd be better off~"와 "It might be a good idea to~"가 왜 다른지, "That's all."이 단순 종결인지 무례한 표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 역량이다.</p> <p><b>2) 교과서 영어와 실제 비즈니스 영어 사이의 간극</b>            국내 대학생들은 문법·독해 중심의 영어 교육을 받아왔으나, 실제 직장·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화용적 표현 능력(pragmatic competence)은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I can do that"과 "We can make that happen"의 차이, "Should be driving"과 "Can drive"의 뉘앙스 차이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p> <p><b>3) 영화 기반 학습 + ChatGPT 롤플레이의 교육적 효과</b>            영화 《The Intern》과 《The Devil Wears Prada》는 스타트업의 수평적 문화와 패션 업계의 수직적 문화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전혀 다른 어조와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제시한다. 영화 장면이라는 실제 맥락(authentic context)에서 표현을 학습하고, ChatGPT와의 즉각적 롤플레이를 통해 사용 연습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는, AI 시대 학습자의 사고력 및 언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융합적 학습 모델이다.</p>					
역량성취 교수법	<p>▶ <b>관찰-분석-사용(Notice-Analyze-Use) 사이클</b>            각 회차는 ① 영화 장면 속 표현 관찰 → ② 교과서 영어와의 차이 분석(왜 이 표현인가?) → ③ ChatGPT 롤플레이로 즉각 사용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표현의 맥락과 뉘앙스를 이해한 후 실제로 써보는 구조다.</p> <p>▶ <b>수직·수평 문화 대비 학습</b>            두 영화의 조직 문화 차이를 활용하여 동일한 상황(부탁, 거절, 보고, 위기 대응 등)에서 격식/비격식, 수직/수평 어조를 비교 학습한다. 학생은 같은 메시지를 두 가지 톤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운다.</p> <p>▶ <b>ChatGPT 삼중 활용 (교정기 + 롤플레이 파트너 + 표현 확장기)</b>            ① 교정기: 학생 작성 이메일·대화문의 뉘앙스·격식 수준 피드백 요청            ② 롤플레이 파트너: 면접, 보고, 협상, 위기 대응 상황을 ChatGPT와 실시간 롤플레이            ③ 표현 확장기: 핵심 표현의 유사·반대 표현, 격식 대안을 ChatGPT로 생성·비교</p> <p>▶ <b>소그룹 동료 피드백 및 누적 표현 키트</b>            매 회차 소그룹(2~3명) 롤플레이 후 동료 피드백을 진행하고, "나만의 비즈니스 영어 표현 키트"를 누적 작성한다. 최종 회차 발표를 통해 협업과 자기표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한다.</p>					

**【 운영 개요 】**

- 대상: 비전공자 대학생 5명 이상 (스크린비즈니스영어 수강생 우선 홍보)
- 기간: 2학기 중 5회차 × 3시간 (총 15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운영 방식: 영화 클립 분석 + ChatGPT 실습 + 소그룹 롤플레이
- 사용 도구: ChatGPT (무료 계정 가능), 표현 분석지.롤플레이 시나리오 (사전 제공)

**【 회차별 세부 구성 (회차당 180분) — 한 학기 10개 카테고리 기반 】**

회차	주제 및 핵심 카테고리	주요 활동 (180분 배분)	산출물
1회차	"왜 내 영어는 딱딱하게 들릴까?" [Cat.1] 완곡·공손 표현 [Cat.2] 조동사 뉘앙스	• 장면 분석: "Send me the file" vs "Would you send me the file?" 비교 (30분) • ChatGPT 실습: 동일 상황을 can/will → should/would로 변환 (90분) • 소그룹 롤플레이: 부탁·거절·조언 3가지 상황 연습 (60분)	표현 키트 #1 완곡·공손 조동사
2회차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비밀" [Cat.5] 구동사 [Cat.7] 담화 표지어	• 장면 분석: like / you know / kind of 기능, make happen / take off your plate (30분) • ChatGPT 교정기: filler 없는 딱딱한 표현 → 원어민식으로 수정 실습 (90분) • 소그룹: 비즈니스 상황별 구동사 교체 연습 (60분)	표현 키트 #2 구동사 담화 표지어
3회차	"영어는 크게 말한다" [Cat.4] 관용·은유 표현 [Cat.6] 과장 표현	• 장면 분석: "Hit the ground running" / "I thought the flesh was gonna melt" 등 (30분) • ChatGPT 실습: 한국어식 절제 표현 → 원어민식 과장·관용 표현으로 변환 (90분) • 소그룹: 관용 표현 유추 퀴즈 + 비즈니스 상황 적용 (60분)	표현 키트 #3 관용·은유 과장 표현
4회차	"회의실에서 살아남기" [Cat.8] 반응·감탄 표현 [Cat.9] 비즈니스 핵심 표현	• 장면 분석: tough call / on board / above and beyond / Brilliant! (30분) • ChatGPT 롤플레이: 보고·제안·성과 발표 비즈니스 시나리오 (90분) • 소그룹: 수직(Devil) vs 수평(Intern) 동일 상황 표현 비교 (60분)	표현 키트 #4 비즈니스 핵심 표현
5회차	"나만의 비즈니스 영어 완성" [Cat.3] 진행형 화용 [Cat.10] 다의어 확장 + 통합 롤플레이	• 장면 분석: "Not sure I should be driving" / GET-RUN-ROLL 다의어 확장 (30분) • 나만의 비즈니스 영어 표현 키트 최종 완성 (60분) • 소그룹 최종 롤플레이 발표 + 강사 피드백 (90분)	최종 표현 키트 (10개 카테고리 통합)

비교과 세부내용

기대효과

- ① **비즈니스 영어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 강화**  
문법적 정확성을 넘어, 상황·관계·목적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는 화용적 판단 능력을 키운다. 동일한 메시지를 격식/비격식, 수직/수평 문화에 맞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은 취업 후 실제 직무 환경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역량이다.
- ② **AI를 전략적 학습 파트너로 활용하는 역량 함양**  
ChatGPT를 단순 번역기가 아닌 롤플레이 파트너·교정기·표현 확장기로 활용하는 경험은, AI 도구를 능동적·전략적으로 사용하는 AI 리터러시 역량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어 학습 이외의 다양한 학습 맥락에서도 전이 가능하다.
- ③ **실전 비즈니스 영어 산출물 확보**  
매 회차 누적 작성된 "나만의 비즈니스 영어 표현 키트"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취업 준비(이메일 작성, 면접,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즉시 활용 가능한 개인화된 학습 자원으로 기능한다.
- ④ **스크린비즈니스영어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 심화**  
본 부트캠프는 스크린비즈니스영어 수업 수강생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여, 교과 학습에서 다루는 영화 기반 표현 학습을 AI 롤플레이 실습으로 확장·심화한다.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성을 통해 학습 효과의 지속성과 전이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 ⑤ **비전공자의 AI 접근성 및 활용 자신감 제고**  
기술적 장벽 없이 영어 학습이라는 친숙한 맥락에서 AI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AI 도구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고 AI 활용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INU AI 역량 강화 부트캠프(토론소모임) 계획안

과목명	AI와의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 문제 발견에서 아이디어 재구성까지 -					
핵심역량 (5점 척도)	도전창조	문제해결	의사소통	지식탐구	창의융합	협업인성
	3	5	3	2	4	3
모집분야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창작 <input type="checkbox"/> AI 실용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문제해결 <input type="checkbox"/> 인문학 탐색 <input type="checkbox"/> 정치·역사·철학 <input type="checkbox"/> AI 시대의 데이터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방송·미디어·심리					
총시수	15시간					
부서(분과)	기초교육원(핵심분과)		담당교수	양태연		
개설 목적 및 필요성	<p>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AI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과제 수행 초반부터 AI에게 아이디어 생성을 요청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창의성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능력'에 머물 수 없다. 오히려 AI가 제시한 여러 대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왜 그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수정하고 결합하여 더 나은 해결안으로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다.</p> <p>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AI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와 협력하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판단하며 해결안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대학생, 지역사회, 교육, 문화, 환경, 소통 등 실제 삶과 연결된 문제를 발견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해결 아이디어를 탐색한 뒤, 팀 토론과 창의적 사고기법을 통해 최종 산출물로 구체화한다.</p> <p>이 프로그램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수업과 연계된다. 해당 수업은 창의성 개념 이해, 디자인씹킹,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스캐퍼, 연꽃기법, CPS, PMI, 육색사고모, TRIZ 등 다양한 창의적 사고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창의적 산출물을 발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본 부트캠프는 이 수업에서 배운 기본 개념과 사고기법을 AI 협업 환경으로 확장하는 심화 활동이다.</p> <p>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창의적 사고기법을 단순히 배우는 활동이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 개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다. 특히 생성형 AI가 아이디어 생성을 보조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평가·선택·수정·통합의 과정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AI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p>					
역량성취 교수법	<p>본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협업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토론, 과정 중심 피드백을 결합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AI를 단순히 아이디어를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며, 아이디어를 평가·수정·통합하는 협력적 사고 도구로 활용한다.</p> <p>특히 본 프로그램은 AI 활용 과정을 생성·평가·수정·통합의 네 단계로 구조화한다.</p> <p>첫째, 생성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 가능성을 확장한다.</p> <p>둘째, 평가 단계에서는 AI 산출물의 타당성, 현실성, 윤리성, 문제 적합성을 학생들이 직접 판단한다.</p> <p>셋째, 수정 단계에서는 AI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이 보완하고 구체화한다.</p> <p>넷째, 통합 단계에서는 AI 아이디어, 팀원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기법을 결합하여 하나의 실행 가능한 해결안으로 재구성한다.</p>					

교수자는 각 단계에서 촉진자, 질문자, 피드백 제공자, 과정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피상적인 문제를 선택하지 않도록 “누구의 문제인가?”, “왜 해결이 필요한가?”, “기존 해결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공한다. AI 활용 단계에서는 적절한 프롬프트 작성법, AI 응답의 비교 방법, 추가 질문을 통한 아이디어 확장 방법을 안내한다. 평가·수정 단계에서는 아이디어가 단순히 흥미롭거나 독특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 가능성과 사회적 의미를 갖도록 피드백한다. 팀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 역할을 경험하도록 운영한다. 팀원들은 활동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성자, 비판적 평가자, 수정·보완자, 통합·정리자 역할을 순환적으로 맡는다. 이를 통해 특정 학생이 발표나 정리만 담당하거나, AI 활용이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AI 협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AI 활용 과정 자체를 학습의 중요한 결과로 다룬다. 학생들은 AI 프롬프트와 응답 기록, 아이디어 선택 이유, 제외된 아이디어와 그 근거, 수정·통합 과정, 팀 내 역할 수행 기록, 개인 성찰문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AI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교수법은 학생들이 AI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협력하면서도 인간의 판단력과 창의적 개입을 유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전창조, 문제해결, 창의융합, 의사소통, 협업인성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자 한다.

비교과 세부내용	회차	시간	주제	주요 내용
	1회차	3시간	AI 시대, 창의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성형 AI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변화 이해 / 인간의 창의적 역할 토론 / 대학생·학·사회·교육 문제 속 해결 주제 탐색
	2회차	3시간	문제 발견과 재정의	디자인씽킹 기반 문제 발견 / 관찰·인터뷰 질문 만들기 / AI를 활용한 문제 재진술 / 팀별 문제 주제 확정
	3회차	3시간	AI와 함께 아이디어 확장하기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이팅 실습 /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안 생성 / AI 아이디어와 학생 아이디어 비교 / 아이디어 목록화
	4회차	3시간	아이디어 평가·선택·수정·통합	다양한 창의적 사고 활동(PMI, 육색사고모, SCAMPER, TRIZ 등)과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평가 / 독창성·유용성·실현가능성·문제적합성 기준 적용 / 팀별 해결안 정교화
	5회차	3시간	창의적 문제해결 산출물 발표	팀별 최종 산출물 발표 / 동료 피드백 / AI 협업 과정 성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첫째,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실제적으로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맥락에 맞게 평가하고 선택하며 수정·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이 단순한 아이디어 생성이 아니라 판단과 재구성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이 강화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관심사, 대학생·학, 지역사회 문제를 연결하여 해결 과제를 설정하고, 창의적 사고기법과 생성형 AI를 결합하여 새로운 해결안을 도출한다. 이는 지식과 기술,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 경험이 된다.

셋째,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된다.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성자, 평가자, 수정자, 통합자 역할을 경험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는 팀 기반 의사결정 능력과 발표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창의성 이론과 창의적 사고기법을 실제 AI 협업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교과 수업의 학습 경험을 비교과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향후 AI 시대 창의성 교육의 과제 설계, 과정 중심 평가, 팀 프로젝트 운영 방식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해 빠르게 답을 얻는 경험”이 아니라, “AI와 협력하면서도 인간의 판단과 창의적 개입을 유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역할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